

企劃論文

# 성공을 위한 서찬규(徐贊奎)의 집념과 노력

조선 후기 어느 한 향촌 양반의 과거 도전기

송만오

전북대학교 강사, 조선사회사 전공

songcop@hanmail.net

- I. 머리말
- II. 성공을 위한 첫걸음
- III. 작은 성공
- IV. 더 큰 성공을 위하여
- V. 맺음말

## I. 머리말

조선은 과거(科擧)의 나라였다. 조선의 과거가 시작한 태조 2년(1393)부터 갑오경장(甲午更張)으로 인해 그 과거가 폐지되던 고종 31년(1894)까지, 502년 18만 3,230일 동안 조선 사회에서는 언제나 과거가 핵심 이슈였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전국 어디에선가는 과거와 관련한 공적(公的)인 일들, 예를 들어 시험 장소의 설치와 도장(塗場) 그리고 해체, 종류를 다 헤아릴 수 없는 시험의 실시, 그 시험 답안지의 채점, 역서(易書), 합격자 혹은 급제자의 은영연(恩榮宴), 알성례(謁聖禮), 유가(遊街) 그리고 도문연(到門宴) 등과 같은 일들이 반드시 진행되고 있었다. 여기에 비공식적인 행사까지 감안한다면 당연히 그 비율은 훨씬 증가한다. 통계로도 얼마든지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이다.

과거에 대한 관심에는 사회 각 계층이 예외가 없었다. 양반(兩班)은 양반대로, 중인(中人)은 중인대로 평민(平民)이나 천민(賤民)은 또 그들 나름대로 좀 더 나은 생(生)을 위해 과거에 매달렸다. 물론 과거에 대한 집념이 가장 강한 사람들은 양반들이었다. 중인이거나 평민 혹은 천민들은 과거 외의 다른 분야에도 관심을 둔 것이 많았지만 양반들은 그렇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과거는 자신들의 삶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었던 셈이다.

물론 조선의 양반들이 모든 과거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아니었다. 그들의 관심은 언제나 문과와 생원진사시에 머물렀다. 잡과(雜科)는 거리가 멀었다. 의학(醫學)이나 역학(譯學) 등과 같은 잡학(雜學)에 대한 천시(賤視) 풍조가 잡과의 격(格)을 떨어뜨렸고, 그 결과 잡과는 주로 중인들이 응시하는 시험으로 전락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무과 역시 비록 적지 않은 양반들이 실제 급제하였지만 그들의 주 관심 영역은 아니었다. 아주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대다수의 양반들에게 무과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 뿐이었다. 무반(武班)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못하였다는 데 그 이유가 있었다.

생원진사시도 사실 양반들의 최종 목표는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생원진사시는 문과에 이르는 중간단계요 또 문과에 급제하지 못한 데 대한 차선책(次善策)에 불과하였다. 처음부터 생원진사시에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공부하는 양반은 없었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일 년에

고작해야 30여 명만 뽑는 문과에 급제하기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문과보다는 합격 가능성이 높은 생원진사시에 도전한 것이었는데, 설사 생원진사시에 합격했다고 해도 거기에 만족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래서 대다수 생원진사시 합격자도 문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았다.

그렇다면 양반들은 생원진사시나 문과를 위하여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하였던 것일까. 그리고 문과에 대한 그들의 집념은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 이러한 점들의 구체적인 모습이 밝혀진다면 위 두 시험과 관련한 조선 양반들의 삶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 글에서는 바로 서찬규라는 인물을 통하여 위와 같은 궁금증들을 풀어보고자 한 것이다. 서찬규를 이 글의 주인공으로 내세운 이유는 물론 그가 여러 측면에서 매우 적절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sup>1)</sup>

그런데 이 글에 들어가기에 앞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 그것은 서찬규의 예를 통하여 얻은 결과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문제이다. 서찬규가 비록 양반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가 그 시대의 조선을 대표하는 양반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당연히 생원진사시와 문과를 준비하는 서찬규의 행동과 다른 양반들의 행동 사이에는 분명 차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서찬규의 행동이 조선시대 양반의 보편적인 모습이라고 단정 지어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이렇게는 말할 수 있을 듯싶다. 서찬규와 같은 시대에 서찬규와 비슷한 처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어느 정도의 경제력은 있지만 가까운 직계(直系) 조상이나 친척 중에 정치적으로 크게 출세했다든가 혹은 학문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없고 유교 이외의 학문에 관심을 둔 적도 없는, 그래서 오직 문과 급제만을 출세의 유일한 길로

1) 서찬규를 이 글의 주인공으로 삼게 된 것은 그의 인물과 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그의 일기와 문집이 남아 있다는 점이 결정적인 이유였다. 주지하는 바겠지만 조선의 양반들이 과거에 합격 또는 급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러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리해둔 일기 자료가 반드시 필요한데 서찬규는 바로 이 점이 해결된 것이었다. 더욱이 서찬규의 『임재일기』는 지난 2011년에 안동 국학연구원의 오현진에 의해 너무도 완벽하게 번역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한문 해독에 전혀 소질이 없는 필자로서도 쉽게 이용할 수가 있었다. 한편 서찬규가 일기를 작성한 시기는 그의 나이 21세 때인 憲宗 11년(1845)부터 37세 때인 哲宗 12년(1861)까지 17년간이었다.

여겼을 법한 향촌의 양반들의 삶을 복원하는 데는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말이다.

## II. 성공을 위한 첫걸음

서찬규는 순조 25년(1825)에 오늘날 대구광역시의 변두리에 해당되는 곳에서 태어났다. 자(字)를 경양(景襄), 호(號)를 임재(臨齋)라고 했으며, 당시로서는 매우 보기 드물게 81세의 수(壽)를 누리며 광무(光武) 9년(1905)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세상을 떠났다. 한두 차례 조정으로부터 관직에 나오라는 부름도 받았지만 단 한 차례도 나아가지 않았던, 따라서 향반(鄉班)으로 태어나 향반으로 생을 마친 인물인 셈이다. 하지만 그의 학문은 당대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넓고 심오했다. 따라서 적어도 학문으로만 본다면 서찬규는 분명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서찬규가 주로 살았던 19세기 중엽의 조선 사회는 격변(激變)의 시대였다. 전국적으로 여기저기에서 민란(民亂)이 발생하고 있었고 더욱이 고종 13년(1876), 그러니까 서찬규의 나이 52세 때는 일본의 무력으로 개항이 이루어져 우리나라의 문호가 최초로 열렸으며, 이 개항을 계기로 외국의 신문물이 차츰차츰 이 땅으로 유입되고 있었다. 한마디로 서찬규의 생애는 전통의 가치와 서구의 가치가 혼재(混在)한 시대에 놓여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해서 그 시기의 조선 사회가 혼란한 것은 아니었다. 전체적으로는 안정적인 상태였다.<sup>2)</sup> 당연히 기존의 전통적인 질서도 흔들리지는 않았다. 외세를 접촉하지 못하는 향촌사회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서울이나 인천 등 직접 외세를 경험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그 점은 다를 바가 없었다. 물론 그것은 이 땅에 대한 저들 외세(外勢)의 침투가 아직은 본격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설사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수백 년을

2) 통설에 의하면 조선 후기의 사회는 혼란기였지만 안정적이었다고 묘사한 사람은 이보다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조선 후기 사회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이어온 유교적 가치관이 쉽게 무너질 수는 없었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이나 서구에 대해서는 화이관(華夷觀)에 입각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져 있는 상태였다. 당연히 저들의 도전이 클수록 우리의 전통을 지키려는 노력 역시 커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다만 외세의 문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점차 긍정적인 쪽으로 흐르고 있었을 뿐이었다.<sup>3)</sup>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서찬규의 생애가 비록 격변의 시대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의 사고가 전통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리라는 것은 틀림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는 그가 일기나 문집에 남긴 글들의 내용을 통하여 쉽게 확인되고 있다. 한마디로 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조선시대 양반의 전형적인 모습을 지닌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서찬규가 양반으로서의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소중히 여겼을 지에 대해서도 어렵지 않게 말할 수가 있다. 그것은 봉제사(奉祭祀)나 접빈객(接賓客)과 같은 예의범절을 수행하거나 결혼 상대를 고르는 데 양반으로서 한 치의 흐트러짐이 없게 하고, 열심히 학문을 익힌 후 기회가 생길 때마다 문과나 생원진사시에 응시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본인도 출세하고 집안도 일으키는 것이었다. 물론 이들 시험에 성공한다면 더 이상 바랄 바가 없겠지만 그것은 다른 문제였다. 양반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합격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가야만 하는 어쩔 수 없는 최소한의 행동 양식이었다. 전통적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않은 서찬규의 사고 안에서는 이 외의 다른 바람은 있지 않았고 또 있을 수도 없었다.

더욱이 서찬규의 입장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더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그의 집안이 과연 양반이냐 아니냐 하는, 다시 말해서 양반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까지도 의심받게 된 처지로 전락한 상태였다고 추측되기 때문인데, 그의 그러한 집안 사정은 면암(勉庵) 최익현(崔益鉉)이 쓴 서찬규의 묘지명<sup>4)</sup>을 통하여서도 확인되고 있다.

3) 『醴泉 맛질 朴氏家 일기』 제3책을 보면 향촌의 양반들이 일본이나 서구의 문물에 대해 어떤 생각을 지니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생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들이 더러 보인다. 3책에는 고종 21년(1884)부터 광무 2년(1898)까지의 일기가 수록되어 있다.

4) 『臨齋先生文集』 권17, 한국역대문집총간(경인문화사, 1994), 515-523쪽.

위 묘지명에 의하면 서찬규의 본관은 대구(大邱)였다. 하지만 그의 집안은 결코 대구서씨 내의 유력한 가락은 아니었다. 서찬규의 9대조 서사진(徐思進)부터 서찬규의 부대(父代)까지 무려 9대 가운데 5대조까지는 그 계보조차 확인이 안 되고 있었으며<sup>5)</sup>, 고조(高祖) 이하 부대까지는 계보야 확인이 되지만 문과나 생원진사시는 고사하고 그 흔하다던 무과급제자 한 사람도 배출하지 못한 처지였다. 음직(蔭職)으로 관직을 지낸 인물이 있을 리도 없었다. 아마도 서찬규의 집안이 이렇게 전락한 데는 서사진이 의병을 일으킬 때 가산(家産)을 모두 쏟아 부은 결과가 아니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서찬규가 자신의 신분에 대해 커다란 위기의식을 느꼈을 것임은 분명하다. 그가 기회가 허락할 때마다 생원진사시나 문과에 도전함으로써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하였을 것임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sup>6)</sup>

물론 서찬규가 이러한 행동을 취할 수 있었던 데는 그의 경제적 형편이 이전에 비해 크게 나아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sup>7)</sup>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현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줄 만한 단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서찬규의 아버지인 서홍렬(徐洪烈)이 어떤 일을 계기로 식재(殖財)에 성공했거나 혹은 그의 처가(妻家)가 경제적으로 매우 여유 있는 집안이었을 가능성이 많은데, 어찌되었건 서찬규로서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그리 어렵지 않게 일찍부터 공부의 길로 접어들 수 있었다. 때로는 집에서, 때로는 뜻이 맞는 몇몇 친구나 족인(族人)과 함께 집 근처 암자(庵子)에 머물면서 문과나 생원진사시에 대비한 공부에 전념하였던 것이다.

5) 서찬규가 고종 12년(1875)에 쓴 「輿譜所僉中」(『임재선생문집』 권8, 458-460쪽)이라는 글을 보면 자신의 일부 先代에 대한 기록이 전하고 있지 않아 그 系譜를 파악할 수가 없으므로 族譜 발간의 일을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말한 대목이 나온다.

6) 서찬규의 집안이 양반에 속하였다는 사실은 분명한 듯하다. 그가 小科에 합격하고 한참 후에 朝廷으로부터 義禁府 都事라는 要職에 除授된 적이 있었다는 점뿐만 아니라 향촌 사회에서의 그의 행적을 통해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다.

7) 여기서 유념할 점이 있다. 조선 사회에서는 경제적인 성공이 사회적인 출세와 정치적인 출세를 보장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만약 경제력이 사회적 지위 혹은 정치적인 지위를 결정하는 사회구조였다면, 다시 말해서 돈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이전 시기에 비해 크게 달라졌다면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 정치적인 지위나 권한이 주어지는 분위기였다면 족보나 행장 또는 묘지명에 그러한 이야기를 적으면서 그의 인생이 성공적이었던 말을 적은 예가 찾아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필자는, 물론 필자가 지금까지 불과 몇 권 안 되는 족보나 문집만 보았을 뿐이지만 그런 내용을 읽은 적이 없다.

서찬규의 일기에 의하면 그가 생애 처음으로 응시한 과거의 개설 소식을 접한 것도 족형(族兄) 동곤(東坤)과 함께 머물며 공부하고 있던 집 근처 암자 은적암(隱跡庵)에서였다.<sup>8)</sup> 그것은 문과였다. 『임재일기』, 현종 11년 1월 11일을 보면 “시경(詩經)의 주남(周南)과 소남(召南)에 대한 공부를 다 마쳤다. 그리고 1권을 통째로 외웠다. 이날 집에서 보내 온 편지를 받았다. 경과(慶科)를 개설하기로 하였다는 점과 함께 경과 초시의 정원이 48명으로 정해졌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sup>9)</sup>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 그 점을 알 수가 있다.

서찬규가 말한 경과란 현종 11년에 있었던 을사정시문과(乙巳庭試文科)를 말한다. 현종의 가례(嘉禮)를 경하(慶賀)한다는 명분으로 마련한 시험이었다. 당시 현종의 비(妃)로 책봉된 사람은 돈녕부영사(敦寧府領事) 익풍부원군(益豐府院君) 홍재룡(洪在龍)의 딸이었던 효정왕후(孝定王后) 홍씨(洪氏)이다. 김조근(金祖根)의 딸로서 현종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효현왕후(孝顯王后)가 현종 8년(1843)에 사망하자 이번에 두 번째 왕비를 맞이하면서 이를 경하(慶賀)한다는 명분의 문무(文武)경과를 설치하게 된 것이었다. 이번 정시는 모든 정시가 반드시 그러하였듯이 문무과가 같이 개설되었는데, 서찬규가 응시한 쪽은 물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과였다.

경과란 궁중에 어떤 경사가 발생하였을 때 그 경사의 기쁨을 전국의 양반들과 함께 나눈다는 의미에서 마련한 문과를 말한다.<sup>10)</sup> 경과를

8) 『임재일기』에는 서찬규가 1월 8일부터 이 암자에서 머물기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이 날짜는 서찬규가 新年을 맞이하여 암자에서 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암자에 들어간 시점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9) 이때의 경과는 정시로 마련되었다. 그런데 정시 문과는 원래 講聖試 문과와 함께 서울에서만 실시하는 단 한 번의 시험으로 최종 급제자를 선발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시험들은 각각 殿庭이나 혹은 文廟에서 왕의 親臨 下에 실시한다는 점 때문에 오래 궁궐과 왕의 모습 혹은 문묘와 왕의 모습을 구경하고자 하는 사람들까지도 대거 몰려들었다. 그래서 科場은 언제나 혼잡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부정행위도 많이 발생하였다. 이에 숙종대부터 이 두 시험에 초시를 실시하자는 논의가 있다가 영조 19년(1743) 이후에 이르러 정시 문과에만 초시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이때 마련한 정시의 초시 시장은 당초 서울에만 마련되었다. 하지만 현종 10년(1844) 이후가 되면, 마치 식년시나 증광시 문과의 초시처럼 외방으로 확대 설치되었다. 따라서 서찬규가 일기에 “경과 초시 정원이 48명으로 정해졌다”고 한 말은 현종 11년의 乙巳庭試 문과의 초시 인원 慶尙左道 試所에 할당된 인원이 48명이었다는 의미가 된다. 정시에 초시제도가 도입되기까지의 논의과정과 정시 초시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필자의 논문, 「조선시대 비정기 문과의 운영에 관한 몇 가지 검토(1)」, 『향토서술』 82(2012)를 참고하기 바란다.

마련하게 된 이유는 양반들로 하여금 왕실과 서로 남남이 아니라 함께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에서였다고 판단되는 데<sup>11)</sup>, 경과는 배경이 된 경사의 규모에 따라 증광시(增廣試) 혹은 별시(別試)<sup>12)</sup>나 정시(庭試)로 설치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중 가장 격이 낮은 정시가 개설된 것이었다.<sup>13)</sup>

정시 문과의 초시를 치른 날은 서찬규가 시험 개설 소식을 들은 뒤 한 달 6일이 지난 2월 17일이었다.<sup>14)</sup> 시장(試場)은 다행히 자기가 사는 대구부(大邱府)에 마련되었다. 따라서 시험을 치르기 위해 굳이 먼 길을 떠날 필요가 없었다. 집에 머물고 있다가 시험에 응시하였는데, 그날따라 일진(日辰)이 좋지 못하였다. 게다가 비도 워낙 세차게 내리는 바람에 글도 제대로 쓸 수가 없었다. 결국 서찬규는 제대로 작성하지 못한 답안지를 제출하고 말았다.<sup>15)</sup> 낙방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였다.

그러나 시험에 낙방하였다고 해서 서찬규가 의기소침해졌는지 혹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물론 낙방한 사람의 기분이 좋을 리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다. 조선의 문과라는 것이, 특히 비정기적으로 시행되던 경과는 왕실에서 발생한 여러 경사, 예를 들어

10) 경과는 반드시 문과에만 해당되는 말이었다. 물론 경과를 증광시로 개설할 때는 무과와 생원진사시 그리고 잡과도 병설되고, 별시나 정시로 마련할 때는 무과도 같이 치러서 방목상에서도 “慶科文武科”니 하는 식으로 경과와 무과의 범주에 포함시키고는 있지만, 무과나 생원진사시 혹은 잡과를 경과로 개설하는 일은 절대로 없었다.

11) 壬辰倭亂이나 韓末 때 양반들이 의병을 일으킨 것도 그들의 주인 의식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12) 별시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보통명사로서의 의미이다. 여기에는 정기시를 제외한 모든 비정기 문과가 포함된다. 증광別試나 庭試別試 혹은 調聖別試라는 용어에 사용된 별시라는 단어가 그러한 예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고유명사로서의 의미이다. 이때의 별시는 초시와 전시 등 두 단계 시험을 거쳐 최종 급제자를 선발하는 시험을 가리킨다. 이 글에서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후자의 의미, 즉 고유명사의 의미로 서만 사용하였음을 밝혀둔다.

13) 비정기 문과의 종류가 다양했던 이유도 바로 이 격 때문이었다. 별시와 증광시 혹은 별시와 정시 사이에 격이 존재하였기에 “增廣大於別試”나 “別試大於庭試”라는 말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문과에 왜 격이 있어야 했는지, 그 격의 기준은 무엇이었는지가 궁금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소개한 필자의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14) 오늘날 조선의 문과에 대한 설명을 보면 모두 별시와 정시 그리고 알성시는 서울에서만 치렀고 또 시험일과 시험 공고일 사이의 기간이 짧아 외방 유생들은 거의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필자의 위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15) 『임재일기』 현종 11년 2월 19일.



왕의 즉위나 평복(平復), 원자(元子)의 탄생, 중전의 책봉이나 평복, 왕세자 책봉, 왕세자 가례, 토역(討逆) 등이 있을 때 그 기쁨을 전국의 양반들하고 같이 나누자는 의미에서 마련한 것이었다. 따라서 그 시험에 참여하는 행위는 양반으로서의 당연한 일이고 또 자신들에게 출세의 기회를 준 성은(聖恩)에 보답하는 일이었다.

물론 그 점은 굳이 문과만이 해당되는 일은 아니었다. 증광시 때 병설되는 생원진사시도 그 점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였다. 문과나 생원진사시에 지원했다가 낙방한 사실을 족보에 당당히 ‘누거부중(屢擧不中)’이라는 표현으로 적을 수 있었던 점도 그러한 맥락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위 정시 문과에서 낙방한 이후 서찬규의 행동이 그 이전과 비교해서 하등 다를 바가 없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실제로도 그러하였다. 그는 정시 문과의 초시를 치른 지 불과 며칠 만에 새로운 장소를 찾아 다시 생원진사시와 문과에 필요한 공부를 시작하였던 것이다.

서찬규가 두 번째로 시험에 도전한 때는 위 정시 문과에서 낙방한 지 6개월 후인 현종 11년 8월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문과가 아닌 생원진사시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가 문과를 포기하고자 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다만 어찌된 일인지 올해, 그러니까 현종 11년에는 문과가 전혀 개설되지 않고 있었다. 응시하고 싶어도 응시할 만한 시험이 없었던 셈이다. 그가 비록 서울에 머물고 있다고 해도 그 점은 하등 다를 바가 없었다.<sup>16)</sup>

이번에 서찬규가 도전하기로 한 생원진사시는 내년, 즉 현종 12년(1846)에 회시(會試)를 치르기로 되어 있는 병오식년시(丙午式年試)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식년시는 문과와 함께 생원진사시 그리고 무과와 잡과가 병설(竝設)되었는데, 그 초시들은 식년 한 해 전인 전식년(前式年) 가을에 치르도록 되어 있었다. 흉년이 들거나 혹은 전쟁이나 역모(逆謀)가 일어나지 않는 한 또는 궁중에서 상(喪)이 발생하거나 갑작스러운 경과가 개설되지 않는 한 반드시 이 규정은 지켜졌는데 올해는 이러한 사건들이 없었기 때문에 가을에 시장(試場)이 마련될 수 있었던 것이다.

시험일은 8월 19일부터 시작되었다. 이번에도 시장은 다행히 서찬규가

16) 다만 서찬규가 이때 만약 성균관에 입학한 상태였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조선 후기에는 성균관 학생들에게 直赴覆試 또는 直赴殿試의 자격을 주거나 혹은 給分하기 위한 시험들이 자주 치러지고 있었으며 이 점은 올해, 즉 현종 11년에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시는 대구부에 마련되어 굳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었다. 소학(小學)에 대한 임강(臨講)으로 이루어지는 조흥강(照訖講)은 8월 1일에 실시되었고 본시험은 19일부터 시작되었다. 즉, 19일에는 진사시 초시인 초장(初場)이 열렸고 그 이틀 후인 21일에는 생원시 초시인 종장(終場)이 실시되었는데 서찬규는 이 두 시험에 모두 응시하였다.<sup>17)</sup> 하지만 소과 초시를 마친 후에 실시하는 문과 초시에는 응시하지 않았다.

서찬규가 종장에서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생원시 초시를 마치고서 나흘이 지난 25일의 일이었다. 관아(官衙)에서 온 방노(榜奴)<sup>18)</sup>가 자신이 제출했던 시지(試紙)를 가져다주면서 전해준 내용이었다. 이때 서찬규는 이번 생원시 합격자에 자신과 함께 공부하던 친구 6명과 가까운 집안사람들도 5명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다. 경상우도에 배정된 생원 초시의 정원 50명 중 11명이 그의 지인(知人)들이었던 셈이다.<sup>19)</sup>

초시 합격 소식을 접한 서찬규의 마음이 얼마나 기뻐할지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비록 내년 봄에 있을 회시가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었지만 그래도 생애 처음으로 맛보는 그 기쁨은 참으로 대단하였으리라 짐작된다. 그리고 물론 이제껏 서찬규의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본 그의 부모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기뻐할 것이다.<sup>20)</sup>

생원시 초시에 합격한 서찬규로서는 이제 내년 봄에 있을 회시에 대비한 공부를 해야 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내용을 공부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전과 전혀 달라질 바가 없었다. 같은 내용을 같은 방법으로 할 뿐이었다. 그래서 때로는 집 근처 암자에 의탁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남의 서재(書齋)에 머물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세모(歲暮)가 되자 집으로 돌아왔다. 신년(新年)을 객지(客地)에서 맞이할 수는 없었기 때문인데, 회시 날짜가 내년, 즉 현종 12년 2월 8일로 정해졌다는 소식을

17) 진사시와 생원시에 모두 응시할 수가 있었다. 초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치르는 회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진사시와 생원시 초시에 모두 합격한 사람은 진사시와 생원시 회시에 모두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같은 해에 실시된 생원과 진사에 모두 합격한 자가 있었는데 이러한 자들을 兩場이라고 불렀다.

18) 『입재일기』를 번역한 오현진에 따르면 방노는 합격자에게 합격 소식을 알리는 노복을 말한다. 물론 방노가 官에서 출발하는 시점은 관아의 벽에 방이 붙은 후의 일이었을 것이다.

19) 『경국대전』에서 정한 생원진사시의 경상도 定額은 각각 100명씩이었다. 2개의 시소가 마련되었으므로 한 試所의 선발인원은 50명이 된다.

20) 그가 합격 소식을 들은 날의 일기를 보면 “榜聲이 거리와 마을에 진동하니 兩親께서도 기뻐하였다”라고 나와 있다.

전해들은 것도 암자에서 집으로 돌아온 지 3일이 지났을 때였다.

### III. 작은 성공<sup>21)</sup>

헌종 12년, 새해가 밝았다. 서찬규에게 올해는 정말 지금까지의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가 있는 한 해였다. 생애 처음 생원시 회시를 치러야 했기 때문이다. 당연히 걱정도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도 있었다. 마침 새해 첫날 처분 시초점(始初占)의 점괘(占卦)도 나쁘지 않았다.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았다. 선영(先塋)을 찾아 자신의 앞길을 지켜달라는 간절한 소망을 빌기도 하였다.

서찬규가 회시를 보기 위해 고향 대구를 떠난 날은 1월 7일이었다. 2월 8일이 시험일이었으므로 무려 한 달 전이었다. 대구에서 서울까지 아무리 여유 있게 잡아도 열흘 거리요, 따라서 1월 말에 출발해도 될 법하지만 서찬규에게는 서울에 먼저 올라가 할 일이 있었다. 그것은 그간 찾아뵙지 못한 서울에 살고 있는 종중(宗中) 어른들께 신년 인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이다.

서찬규의 이번 서울행은 혼자가 아니었다. 지난 번 초시에 같이 합격한 사람들로서 함께 회시를 보아야 하는 족형 및 태촌(台村)의 사람들이었다. 이들의 상경 여정(旅程)은 날씨가 춥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불편한 일이 없었다.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며 가다가 경치 구경도 하고 간혹은 유명한 분들의 위패를 모신 사당에 들러 참배하기도 하였다. 하루에 대략 60리에서 80리 사이를 이동하였고 잠을 청한 곳은 주로 원(院)이었다. 이곳에서는 때때로 역시 회시를 보러 가는 지인을 만나기도 하였다.

일행이 서울에 도착한 날은 고향 대구를 떠난 지 정확히 10일 만인 1월 17일이었는데, 서찬규의 눈에 비친 서울의 모습은 정말 놀라웠다.<sup>22)</sup>

21) 제3장은 서찬규가 생원시에 합격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본 부분이다. 이 章의 제목을 “작은 성공”이라고 한 이유는, 梅山 洪直弼이 서찬규의 생원시 합격을 “小成”이라고 표현한 데서 착안한 것이다. 『임재일기』 권6, 「雜著」, 就正日錄, 庚戌 四月 五日을 보면 “(홍직필)曰 聞已小成 年歲 幾何 小成在何年 對曰 年今廿六 而去丙午年 忝蓮榜 先生曰 妙齡 小成矣”라고 나온다. 소성이라는 단어는 으레 소과 합격자를 칭하는 일반적인 단어로서 “소과에 성공했다”는 의미였다고 여겨진다. 이에 비해 문과 급제, 즉 大科 급제에 대해서는 “大成”이라고 칭하였다. 당연히 “대과에 성공했다”는 뜻이라고 생각된다.

22) 이번이 서찬규의 첫 서울 방문인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표1-현종 12년 서찬규의 上京 일정<sup>23)</sup>

날짜	날씨	여정	특이 사항
1월 6일	맑음	서울 갈 차비	
1월 7일	바람	출발	·族兄 및 台村의 一行과 同行
		30리 행. 曾谷 도착	·하룻밤 묵음
1월 8일	추움	20리 행. 多富院 도착	·院北의 族人 聖極 형제 만남
		5리 행. 水淸店 도착	·점심 먹음 ·다른 일행 만남
		15리 행. 長川 도착	·하룻밤 묵음
1월 9일	맑음	30리 행. 海坪 도착	·점심 먹음
		50리 행. 洛東江 도착. 벧사공과 함께 얼음 위로 강을 건넌	·八十浦와 道開浦를 지남
		낙동점 투숙	·하룻밤 묵음
1월 10일	흐림, 갬, 바람, 추움	40리 행. 洛院 도착	·점심 먹음
		40리 행. 唐橋 도착	·하룻밤 묵음
1월 11일	맑음	10리 행. 幽谷 통과	
		20리 행. 聞慶 新院 도착	·점심
		30리 행. 鳥嶺 草谷 도착	·하룻밤 묵음 ·會試 보러 가는 白乃明 만남
1월 12일	맑고 차가운 눈바람	가마 타고 조령 넘음(경치 구경)	·가마세 1냥 2전 4푼 <sup>24)</sup>
		冷水落點에 도착	·가마를 말로 바꾸어 탑
		말 타고 安保 도착 (가마에서 말 탄 거리 30리)	·점심 먹음
		28리 행. 新酒店 도착	·하룻밤 묵음
1월 13일	맑음	10리 행. 三超臺 지나감	·林慶業 장군 독서하던 곳
		5리 행. 忠烈祠 도착	·參拜(임경업 영정 모신 사당)
		5리 행. 獺川 통과	·東으로 彈琴臺 보임 ·壬辰倭亂 때 申立 장군이 設陣한 곳
		20리 행. 大超院 도착	·점심 먹음
		20리 행. 龍院 도착	·하룻밤 묵음
1월 14일	맑음	30리 행. 泉洞店 도착	·점심
		40리 행. 廣岩店 도착	·하룻밤 묵음
1월 15일	맑음	30리 행. 白岩 도착	·점심 먹음 ·雪 때문에 留宿
1월 16일	맑음	50리 행. 金良 도착	·점심 먹음
		30리 행. 龍仁 도착	·하룻밤 묵음
1월 17일	흐림, 갬	悅院 도착	·아침 먹음
		50리 행. 新院 도착	·점심 먹음
		30리 행. 西水庫 나루 도착	·얼음 타고 건넌
		10리 행. 南門 통과	·倉洞 여관 투숙

23) 『簡牘切要』라는 책의 부록인 八道程里記를 보면 대구와 서울과의 路程을 “大邱-東明院-古里谷-洛東-洛原-幽谷-聞慶-安富-達川-崇善-陣村-陽智-龍仁-板橋-京”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 따라서 이 길이 가장 빠르고 안전하였으리라 짐작되는데, 서찬규의 上京 길이나 下鄉 길을 보면 이 路線을 따르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매번 길을 달리하였다. 그것은 그가 서울에 가거나 혹은 고향에 내려오면서 다른 볼일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 일 중에는 풍광 좋은 명소를 구경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24) 조선시대에는 과거보러 다니는 사람들을 주로 상대하며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는데 심지어는 도적도 있었다. 一例로 『예천 맛질 朴氏家 일기』 3(한국학

그는 그때 받은 감동을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서빙고(西水庫) 나루에 도착하였다. 얼음 위를 걸어 강을 건넜는데 강산과 백성들 물산이 이미 변화하고 웅결한 모습이 있었다. 10리를 가서 남문(南門)을 통해 성(城) 안에 들어가니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모든 것이 크고 아름다워 필설로 다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이다.

시험일에 한참 앞서 서울에 도착한 서찬규는 일단 창동(倉洞) 여관에 짐을 풀었다. 하지만 그 다음날 지인의 집으로 장소를 옮겼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서울에 살고 있는 일가들 중 이름 있는 자들이나 연(緣)이 닿는 사람들을 찾아 나섰다.<sup>25)</sup> 딱히 계촌간(計村間)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본향(本鄉)이 같은 사람으로서 인사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22일 저녁, 자신의 서울 생활의 내용을 적은 편지를 집으로 보냈다. 집으로부터 그 편지에 대한 답장이 도착한 날은 26일, 서울에서 대구까지 불과 4일 만에 편지가 오고 간 셈이었다.<sup>26)</sup> 그만큼 서찬규나 서찬규 부모의 마음이 조급해져 있었던 것이다. 한편 서찬규가 집의 편지를 받은 지 4일 후인 1월 30일에는 이번 생원진사시 회시에서 사용해야 할 시지(試紙)의 샘플이 공개되었다.<sup>27)</sup>

생원시 회시를 치른 날은 2월 10일이었다.<sup>28)</sup> 그에 앞선 2월 8일에는 진사시 초시를 마쳤는데, 물론 이 진사시에 서찬규는 응시할 수가 없었다. 자신이 합격한 초시는 생원시였기 때문이다. 시험 날 아침 그는 같이 초시에 합격했던 동접(同接)들과 함께 시험장에 들어가, 정신없이 답안지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시험장에서 빠져나와 임시로 마련해놓은 천막에서 동접들을 기다렸다. 하지만 이들이 나오지 않자, 서찬규는 어수선한

중앙연구원, 2005), 11쪽 고종 22년 2월 8일을 보면 “聞科儒十二人遇賊 失七百餘金於道上”이라고 나와 있다.

25) 서찬규가 서울에 도착한 후로부터 3일이 지난 1월 20일의 일기를 보면 “족형과 함께 寺洞의 安城 徐灝淳, 碧洞의 判書 徐喜淳, 校洞의 承旨 徐大淳을 방문하고 날이 저물어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다.

26) 이때의 편지는 아마도 馬便으로 急速으로 보내졌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다면 당연히 비용도 人便보다는 훨씬 더 들었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7) 서찬규가 이 試紙를 어느 곳에서 구입했는지는 모르겠다. 六矣塵의 紙塵이었을 가능성도 있고 또는 시험장 곁에서 좌관을 벌린 行商이었을 수도 있다.

28) 회시의 시험장은 두 곳에 마련되었는데 그가 배정받은 시소는 제1所였다. 『科擧謄錄』, 영조 20년 8월 17일에 “各道監試初試原榜 則左道及平安咸鏡南所與江原道付於一所 右道及平安咸鏡北所與黃海道 則付於二所是乎跡 至於公都會入格儒生之分排 一二所 則勿論 左右南北所 腰以上付於一所 腰以下付於二所者”라고 나와 있어 그 점을 알 수가 있다.

마음을 달래기 위해 궁(宮) 뒷담장의 벽송정(碧松亭)에 올라 예조(禮曹) 앞에 마련된 이소(二所)의 시험장을 바라보았다. 땀을 뻘뻘 흘리며 답안을 작성하는 선비들도 보였고, 늙은 선비가 시관을 향해 땀을 애걸하는 듯한 모습도 눈에 들어왔다.

회시의 결과는 시험을 마친 지 불과 이틀 만인 2월 12일에 발표되기로 되어 있었다. 당시 지인의 집에 머물고 있던 서찬규는 그 결과가 너무도 궁금하여 집에 도저히 머물 수가 없었다. 조금한 마음에 같이 회시를 치렀던 동료들과 함께 방이 붙기로 되어 있는 돈화문(敦化門)으로 나가 보았다. 그러나 방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그곳에서 머무를 수가 없었다. 사람들이 서로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너무 많아 여러모로 불편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서찬규와 그의 일행은 다시 숙소로 돌아와 저녁밥을 먹고 시험 결과의 소식이 당도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후였다. 방을 보고 온 누군가가 동점인 덕우의 참방(參榜) 소식을 전했다. 서찬규도 내심 자신의 이름이 불리기를 기대했지만 자신과 족형의 이야기는 없었다. 낙방한 것이 분명했다. 서찬규는 낙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저 마루에 나와 앉아 하늘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자형(姊兄)이 혈레벌떡 오더니 서찬규의 손을 잡아당기며 그의 참방 소식을 전해주었다. 자형의 말을 듣는 순간 서찬규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치 꿈속에 있는 듯했다. 그저 모든 것이 어리둥절했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하지만 족형이 낙방하였다는 소식에 마냥 기쁜 표정만 짓기는 곤란했다. 그렇다고 족형을 딱히 위로해줄 말도 없었다. 그저 모든 마음을 일기에만 담았을 뿐이었다.

여러 벗들과 돈화문 밖으로 나갔다. 방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서로 어깨가 부딪혀 잠시도 머물기가 어려웠다. 또 내 몸도 불편하여 족형 덕우와 함께 반으로 돌아왔다. 저물어서야 저녁밥을 겨우 먹고 쉬고 있는데 급한 전갈이 와서 전하기를 “덕우는 방에 들었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다. 이에 나와 족형은 함께 낙방한 줄 알았다. 허전한 마음에 마루로 나와 있는데 조금 있으니 자형이 숨을 헐떡이며 왔다. 그러더니 내 손을 잡아당기며 내가 參榜하였다고 알려주었다. 하지만 족형은 떨어졌다고 탄식하여 족형을 돌아보며 좋은 말로 서로 위로하여 주었다. 나는 나의 참방 소식을 듣고 마치 꿈속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다. 그저 어리둥절하였다. 어찌할 줄도 몰랐다. 하지만 족형을 돌아보니 마냥 기뻐할 일만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족형을 위로해줄 마땅한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우리 一族 가운데 떨어진 사람들이 여러 명이었으니 누가 안타까이 혀를 차지 않겠는가. 나와 덕우 그리고 죽형은 함께 고생하며 공부한 사이이다. 그리고 이번 회시에도 같이 응시했었다. 따라서 인간적인 情으로 본다면이야 당연히 모두가 합격했어야 옳다. 하나 죽형만 혼자 낙방하고 말았으니 그저 일이 잘되었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죽형만 생각하면 탄식만 나올 뿐이었다.<sup>29)</sup>

합격자 발표가 있던 날 서찬규가 머물고 있는 반(泮)<sup>30)</sup>에는 그와 덕우의 합격을 축하해 주기 위한 축하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판사(判事) 신대응(申大鷹)<sup>31)</sup>은 서찬규의 이름을 불러주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는 판서(判書) 서희순<sup>32)</sup>도 사람을 보내어 서찬규의 합격을 축하하였으며, 서찬규와 같은 경상도 출신의 문관(文官)과 서찬규보다 먼저 생원 혹은 진사에 합격한 자들도 역시 그러하였는데, 이러한 일은 며칠이나 계속되었다.

한편 합격자 발표가 있던 다음날 아침 일찍 서찬규는 자신의 합격 소식을 담은 편지를 고향으로 보냈다. 이 기쁜 소식을 부모님께 가장 먼저 알려야 한다는 판단에서였다. 마음으로야 바로 고향으로 내려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방방례(放榜禮)와 은영연(恩榮宴)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 행사들은 각각 2월 27일과 28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서울에 머물러야만 했는데, 서찬규는 이 기간을 이용하여 임금의 수원 행차도 구경하고 또 남산에 올라 서울 시내를 굽어보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고향으로 내려갈 때 길을 즐겁게 해줄 창부(唱夫)와 재인(才人) 그리고 무동(舞童) 등 세 사람을 정해두었다. 자신이 생각해도 자신의 이번 생원시 합격은 정말 크게 축하해야 할 일이라는 판단에서였다.

그런가하면 때마침 2월 25일에 정시가 개설되자 이에 응시하기도 하였다.<sup>33)</sup> 이번 정시는 비록 중시(重試)의 대거(對擧)로서 마련된 것이지

29) 『임제일기』 현종 12년 2월 12일.

30) 반은 그저 서찬규가 머물고 있던 숙소를 의미하는 듯하다.

31) 순조 19년(1819) 己卯式年試 급제자였다.

32) 순조 16년(1816) 丙子庭試 급제자였다.

33) 현종 12년에 치렀던 丙午庭試를 가리킨다. 이 정시는 重試의 對擧였다. 즉, 중시를 실시한 데 따라 그 대거로서 정식 문무과를 개설한 것이었는데 중시가 치러진 날은 이해 3월 14일이었다. 『조선왕조실록』의 이 날짜에 그 내용이 나온다. 한편 시험 보기 전날 서찬규는 정시 錄名을 마친 뒤에 자리를 배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당연히 자리표를 받았으리라 짐작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정시의 시장에서 자리를 배정해

만 사실은 생원진사시 회시와 문과 복시에 응시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왔다가 낙방한 후 고향으로 내려가야 하는 자들에게 문과 응시의 기회도 주고 궁궐의 모습도 볼 수 있게 해준다는 목적도 있었다.<sup>34)</sup> 그래서 시험일도 문과 복시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때로 정한 것이었다. 너무 늦게 하면 그때까지 서울에 머무르게 될 외방 유생들에게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는데, 서찬규도 동료 10명과 함께 이 정시에 응시하기로 하고 시험 전날인 2월 24일 등록을 끝내고 시험장에 들어가 내일 자신들이 앉게 될 자리를 정하고 나왔다.<sup>35)</sup> 그러고는 다음날 아침 일찍 함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시험장에 입장하여 시험을 치렀다.

물론 그렇다고 이번 정시에 서찬규가 급제를 바라고 응시한 것은 아니었다. 시험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저 경험 삼아 응시하였으며 그 기회를 이용하여 궁궐의 모습을 구경하고자 하는 마음에서였다. 그리고 거기에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그저 경험 삼아 혹은 구경 삼아 모인 인파는 참으로 엄청났다. 그의 눈에는 그저 태평성대의 덕으로만 보였을 뿐이었다.

2월 27일이 되자 소과 합격자에 대한 창방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이튿날인 28일에는 은영연이 거행되었다. 그는 이날 궁궐에 들어가 생전 처음으로 왕의 얼굴을 가까이서 뵈는 영광을 누렸다. 이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설렘은지는 그날의 일기를 통하여 짐작할 수가 있다.

아침 일찍 덕우와 함께 돈화문에 들어가 숙장문으로 해서 동쪽으로 나아가 여러 겹의 문을 지나서 宮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행사가 진행되기에는 아직 너무 일렀다. 오후 늦게까지 기다리자 비로소 한 사람씩 차례차례 宮闕의 뜰 앞에 나오라는 명이 내려왔다. 侍衛가 우리들의 걸음을 재촉하였다. 반차가 이르자 우리들은 東西로 나뉘어 鞠躬하고 서 있었다. 음악이 연주되었으며 우리들은 땀에 맞추어 왕에게 절을 올렸다. 왕께서 술과 황대구의 조그만 조각을 下賜한 후 또 절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이에 네 번의 절을 올린 후 鞠躬하고 서 있었다.

---

주기 시작한 때가 언제부터인지를 알 수 없다. 적어도 영조대까지는 그런 예가 없었다.

34) 이런 명분의 정시를 마련한 예는 이전에도 더러 있었다. 한편 정시라는 시험이 원래는 단 한 번의 시험만으로 최종 급제자를 선발하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바람에 많은 폐단이 발생하였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초시를 도입하였다고 말한 바 있는데, 모든 정시에 초시가 치러진 것은 아니었다. 서찬규가 이번에 응시한 정시도 초시는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서찬규가 바로 응시할 수 있었던 것이다.

35) 이번 정시의 시험장은 春塘臺에 마련되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首席으로 합격한 사람부터 차례로 계단에 올라가서 동쪽을 향해 曲拜하고 龍末 아래로 나아가 절한 후 허리를 구부린 채 서 있었다. 侍臣이 나에게 말하기를 “職과 성명을 크게 아뢰어 올려라”라고 하여 나는 곧바로 “생원 臣 서찬규입니다”라고 아뢰었다. 그때 白牌를 난삼의 앞설에 꽂고 있었는데 상께서 侍臣에게 명하시어 백패를 올리게 하시곤 아주 자세히 보셨다. 이에 나는 일어나 종종걸음으로 물러 나와 다시 계단의 아래쪽에서 曲拜를 마치고 뜰로 내려왔다. 咫尺에서 天顏을 뵈니 엄숙하여 감히 시선을 돌릴 수가 없었다. 다만 나아가고 물러갈 때에 보니 상의 앞에 방목 한 축이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타기 하나가 있고 어좌 동쪽에는 承旨와 注書 4-5명이 엮드려 있으며 자리 뒤에 금실로 수를 놓은 天保多福 네 글자가 걸려 있었다.

생원시 합격자로서 서찬규의 공식 일정은 방방례를 마친 다음날 문묘(文廟)를 찾아 공자(孔子)를 참배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 그로서는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는 일만 남았다. 이에 그는 이전에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약조를 해두었던 창부 등 놀이패들과 함께 가랑비가 소록소록 내리는 3월 5일, 마침내 배를 타고 한강을 건넜다. 배 위로 불어오는 봄바람 속에서 창부가 불러주는 쌍피리 소리는 풍취를 돋이우기에 너무도 충분하였다.

서찬규의 환향(還鄉)길은 9일 여정이었다. 서울에 올라갈 때보다는 하루 정도 적게 든 것이었다. 고향에서 부모님이 자신의 도문연(到門宴) 날짜를 서둘러 정하는 바람에 일정을 서두른 결과였다. 서찬규는 금강진에 도착한 후 거기서 작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넜는데, 거기에는 아버넌께서 이미 한참 전부터 말을 매어놓은 채 서찬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제 다가 아니었다. 정말 상상 이상의 장면이 펼쳐져 있었다.

작은 帆船에 올라 쌍고동 소리를 날리며 강을 건넜다. 家親께서는 한참 전부터 말을 매어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官에서 또 樂士를 보내어 음악을 연주하게 하자 四方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담처럼 늘어서 있었다. 이어 말에 오르자 창부와 재인들이 絃樂과 管樂을 어울려 연주하고 소매를 펼치며 춤을 추었다. 10리 길 비단 같은 江가에 늘어진 꽃과 버들이 모두들 너무도 아름다웠다.<sup>36)</sup>

서찬규가 강기슭을 벗어나 집 쪽으로 가까이 오자 거기에도 자신의

36) 『임재일기』 현종 12년 3월 12일.

37) 이날 고향으로부터 사람이 와서 到門宴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려주었다. 그래서

표2-헌중 12년 서찬규의 환향(還鄉) 일정

날짜	날씨	여정	특이 사항
3월 5일	오후에 가랑비	창부와 함께 漢江에서 배 탐	
		20리 행. 말죽거리 도착	점심 먹음
		10리 행. 新院 도착	하룻밤 묵음
3월 6일	늦게 흐림	50리 행. 龍仁邑 도착	점심 먹음
		50리 행. 別彌店 도착	잠시 휴식
		10리 행. 曲洞 고개 넘어 內洞店 도착	하룻밤 묵음
3월 7일 <sup>37)</sup>	맑음	40리 행. 廣岩店 도착	점심 먹음
		50리 행. 慕道院 여관 도착	하룻밤 묵음
3월 8일	맑음	20리 행. 용원 도착	아침 먹음
		40리 행. 달천 주막 도착	점심 먹음
		50리 행. 안보 주막 도착	하룻밤 묵음
3월 9일	흐림	5리 행. 冷水落店 도착	가랑비에 옷을 적심
		30리 행. 草谷 도착	점심 먹음
		30리 행. 新院 도착	하룻밤 묵음
3월 10일	가랑비, 맑음	40리 행. 胎峯 도착	점심 먹음
		30리 행. 낙원 도착	
		40리 행. 洛東店 도착	햇불 밝힘
3월 11일	맑음	낙동강을 건넌	
		50리 행. 해평점 도착	점심 먹음
		40리 행. 수정점 도착	저녁 밥 먹음
		10리 행. 다부원 도착	햇불 밝힘
		20리 행. 중곡 도착	하룻밤 묵음
3월 12일	흐리다가 맑음	20리 행. 말 타고 琴江津 감	금강진에서 장인 만남
		작은 帆船에 올라 강을 건넌	

생원시 합격을 축하해주기 위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는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전하였다.

南山에 도착하니 많은 사람들이 거리와 문 쪽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인과의 물결이 바다처럼 보였다. 할머니를 뵈고 문 밖으로 물러 나오자 慈仁守令 朴奎賢이 도착하여 呼新<sup>38)</sup>을 하였다. 進退를 조금 하다가 먹이 얼굴에 묻은 채로 말을 거꾸로 타고 동산으로 몰아갔는데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옛사람들의 이 놀이가 어느 때에 시작되었는지를 알지 못하겠으나 栗谷 李 선생께서는 墨戲를 받지 않았다고 하신 바가 있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이날부터는 좀 더 빨리 고향으로 내려간다.

38) 上級官員이 새로 과거에 합격한 사람을 축하해주는 의식이다.

들었다. 잠두에 도착해보니 사람들이 장막을 설치하고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다. 나도 이들과 함께 한참동안 풍류를 즐겼다.<sup>39)</sup>

도문연을 마치고 이들이 지난 15일부터 서찬규는 아버지와 함께 선영을 찾아 제사를 올리거나 때로는 서당에서 함께 공부하였던 사람들과 담소(淡素)를 나누었다. 또 향교의 대성전(大成殿)에 나아가 공자를 배알하였으며 고을의 현감(縣監)과 관찰사(觀察使)를 뵈고 인사를 올리기도 하였다. 그런가하면 선현(先賢)들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여러 서원도 참배하였는데, 집에서 멀리 떨어진 서원을 갈 때면 그곳에서 하룻밤을 머문 적도 있었다. 물론 친척 어른들을 찾아뵈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러한 일들은 수개월 동안 계속되었는데 그 사이 7월 말에는 프랑스의 선박이 충청도 홍주(洪州) 앞의 섬까지 와서 머물다가 갔다는 소문도 들렸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생원시 합격으로 잔뜩 들떠 있던 마음도 이제는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 그러자 9월 16일에 이르러 마침내 서찬규는 자신이 서울에서 데리고 왔던 창부들을 다시 돌려보낼 결심을 하였다. 서운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6개월을 함께하는 사이에 서로의 정이 없을 수 없었다. 정작 헤어져야 한다고 하니 눈물도 나오고 서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다. 하지만 그들이 언제까지 이곳에 머물 수는 없었다.

창부들이 돌아간 뒤로부터 며칠 후 서찬규는 사마소(司馬所)에 들러 함께 자기보다 먼저 생원 또는 진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과 담소를 즐기기도 하였다. 그곳의 청금안(靑衿案)에 이름도 올렸다. 그러나 이들과의 만남은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생원시에 합격한 후 여태껏 그저 놀고먹은 과정에서 흐트러졌던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서였다. 공부를 계속하여야 했기 때문이고, 그것은 물론 문과에 도전하기 위해서였다.

39) 주 38)과 같음.

## IV. 더 큰 성공을 위하여

생원시에 합격한 후 서찬규의 인생이 어떻게 변하였을지를 말하기는 간단치 않다. 그 변화의 정도가 잣대로 잴 수도 없을 뿐더러 본인이 느끼는 바와 남이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다. 남들 눈에는 그저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지 몰라도 나에게서는 참으로 가치 있는 소중한 일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변화가 어떠한 것이든 서찬규가 목표로 한 바는 아니었다. 애초부터 그가 목표로 한 바가 소과 합격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시대의 거의 모든 양반이 그러하였듯이 그의 꿈도 역시 문과였다. 그가 처음 문을 두드린 시험이 문과였다는 사실만 보아도 그 점은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다. 음직(陰職)도 기대할 수 없었던 서찬규로서는 오직 문과에 급제하여야만 관계에 나아갈 수 있고, 또 그 기회를 이용하여 자신의 포부를 펼칠 수 있었다.<sup>40)</sup> 집안을 일으키고 또 출세하였다는 소리를 듣기에도 진사 합격의 자격만으로는 충분치 못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해마다 전국에서 30명 이하의 극소수의 사람만이 통과하는 문과에 급제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서찬규가 문과에 앞서 일단 소과에 도전하게 된 이유도 그러한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가 소과에 합격하였다고 해서 그의 마음이 문과로부터 멀어진 것은 결코 아니었다. 오히려 소과 합격 이전에 비해 문과에 대한 집념이 얼마든지 더 강해졌을 수도 있다. 하면 된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서찬규는 생원시에 합격했던 바로 그해,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현종 12년 가을 사마소(司馬所)를 방문했을 즈음부터 곧바로 문과에 도전하기 위한 공부를 시작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는 그해 10월 28일에 몇몇 뜻이 맞는 친구들을 만나 이번 겨울을 은암(隱菴)<sup>41)</sup>이라는 암자에서 공부하며 지내기로 서로 약속한 바가 있었다. 그리고 친구들은 바로 그날 은암으로 떠났으며, 서찬규도 그 다음날인 10월 29일에 암자로

40) 勉庵 崔益鉉이 쓴 서찬규의 묘지명을 보면 “憲廟丙午中進士 遂棄舉業慨然有求道之心 庚戌闕梅山先生于鷺湖”(『임재선생문집』 권17, 한국역대문집총간, 경인문화사, 1994, 516쪽, 墓誌銘)라고 하여 서찬규가 생원시 합격 이후 科業을 포기한 것으로 나와 있다. 하지만 최익현의 이 말은 착오였다.

41) 은암이 어디에 있던 암자인지는 모르겠으나 서찬규의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올랐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머물고 있었다. 공부하기에 전혀 적합한 장소가 아니었다. 이에 서찬규와 일행은 당초 계획을 바꾸기로 하고 바로 동산<sup>42)</sup>으로 내려와 공부할 만한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였다. 그러고는 아버지께 편지를 보내어 이런 사정을 알려드렸다.

처음에는 파계사(破溪寺)에서 머물 계획이었다.<sup>43)</sup> 그런 생각에 일단 친구 두 사람과 함께 파계사로 갔다. 하지만 거기도 은암과 사정은 마찬가지로였다. 사람도 많고 마땅히 공부할 장소가 없었다. 이에 그들은 최종적으로 부석암(浮石菴)<sup>44)</sup>을 찾아 이곳에서 내년, 즉 현종 13년(1847) 봄까지 머물기로 결정하였다. 그 후 그는 세모(歲暮) 또는 정말 급한 볼 일이 아니라면 암자에 머물며 문과 급제에 필요한 공부에만 전념하였다.

그런 그에게 문과가 개설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온 때는 현종 13년 1월 13일이었다. 그가 부석암에서 공부를 시작한 지 두어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그날 서찬규는 집과 암자를 오가며 심부름을 하는 아이로부터 오는 2월 26일 서울에서 정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sup>45)</sup> 이는 분명 서찬규의 아버지가 조보(朝報)를 보고 알게 된 사실이었다고 추측되는데, 서찬규도 이 정시에 응시하기로 마음을 굳힌다. 비록 공부가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부모님의 바람에 부응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서찬규가 정시에 응시하기 위해 상경길에 오른 날은 2월 6일이었다. 시험일 20일 전이었다. 생원시 회시 때 40여 일 전에 출발한 것에 비한다면 이번에는 출발이 매우 늦은 편이었다. 하지만 그때와 달리 이번에는 찾아뵙고 인사를 드릴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래서 서둘 필요 없이 여유로운 여정을 밟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정시에 대한 도전은 실패였다. 전국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리는 데서 고작해야 10명 정도만 뽑고, 또 그마저 서울과 경기 지역의 선비들에게 유리하게 운영되는 정시에 급제하기를 바라는 것은

42) 이 동산이 서찬규의 집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다.

43) 대구 八空山에 있는 寺刹이다. 파계는 여러 골짜기의 물이 모인다는 뜻으로서, 아홉 골짜기의 물이 파계사 근처 이르러 모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44) 어디에 있는 암자인지를 모르겠다. 영주 부석사와는 관련이 없어 보인다.

45) 현종 13년(1847)의 丁未庭試를 말한다.

표3-서찬규의 문과 도전 내역

구분	날짜	나이	시험 종류	시험 장소	비고(특이 사항)
1	헌종 11년(1845) 2월 19일 <sup>46)</sup>	21세	정시 초시	대구	생원시 합격 이전
2	헌종 12년(1846) 2월 24일	22세	정시(초시 無)	서울 춘당대	생원시 합격 이전
3	헌종 13년(1847) 2월 26일	23세	정시 <sup>47)</sup>	서울 춘당대	생원시 합격 이후
4	헌종 13년(1847) 3월 22일	23세	三日製	서울 성균관	
5	헌종 13년(1847) 9월 23일	23세	都會	경주	
6	헌종 14년(1848) 3월 24일	24세	증광시 초시	대구	
7	헌종 14년(1848) 4월 1일	24세	도회	대구	
8	헌종 14년(1848) 10월 30일	24세	정시	서울 춘당대	
9	헌종 15년(1849) 4월 20일	25세	정시	서울 춘당대	
10	헌종 15년(1849) 4월 22일	25세	삼일제	서울 명륜당	4월 24일부터 반궁 제류, 곧 귀향
11	철종 1년(1850) 2월 27일	26세	人日製	서울 성균관	·1월 27일 성균관 입학 결정 ·2월 7일 입학
12	철종 1년(1850) 2월 28일	26세	인일제 大輪次 <sup>48)</sup>	서울 성균관	
13	철종 1년(1850) 2월 29일	26세	증광시 초시	서울	2월 29일: 초장 3월 2일: 종장
14	철종 1년(1850) 4월 4일	26세	到記科	서울 춘당대	·홍직필의 문하에 들
15	철종 1년(1850) 4월 7일	26세	三日製	서울 춘당대	·홍직필이 참먹 줌
16	철종 3년(1852) 2월 29일	28세	인일제	서울	
17	철종 4년(1853) 2월 19일	29세	정시 초시	대구	·8월 5일 홍직필 사망 ·고향에 머물 (家親 생신)
18	철종 4년(1853) 7월 26일	29세	秋到記 (到記儒生 殿講)	서울 성균관	
19	철종 5년(1854) 2월 24일	30세	人日製	서울 성균관	
20	철종 5년(1854) 2월 27일	30세	정시	서울 춘당대	
21	철종 5년(1854) 2월 28일	30세	三日製	서울 춘당대	
22	철종 8년(1857) 4월 9일	33세	정시	서울 춘당대	
23	철종 8년(1857) 4월 11일	33세	三日製	서울 춘당대	
24	철종 9년(1858) 3월 18일	34세	정시 초시	대구	
25	철종 9년(1858) 8월 9일	34세	식년시 초시	대구	대구 인근 지역
26	철종 10년(1859) 1월 19일	35세	증광시 초시	대구	·1월 19일 초장 ·1월 21일 종장
27	철종 12년(1861) 2월 18일	37세	식년시 초시	대구 (인근)	·2월 18일 초장 ·2월 20일 종장
철종 12년(1861) 4월 29일 일기 끝남					

애초부터 불가능하고 무모한 일이었다. 따라서 이번 정시에 낙방하였다고 해도 그리 큰일도 아니었다. 정시에서 낙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서찬규는 다시 또 이전과 마찬가지로 암자와 집을 오가면서 문과에 필요한 공부에 전념하였다. 그리고 기회가 생길 때마다 문과에 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표3을 보아서도 알 수 있겠지만 서찬규가 문과 급제를 위해 응시하였던 시험의 횟수는 모두 27회가 된다. 그중 2회는 생원시 합격 이전이었고 나머지는 생원시 합격 이후의 상황이었다. 물론 이 횟수는 어디까지나 서찬규의 『임재일기』와 그의 문집에 나와 있는 내용만을 토대로 한 것이다. 그의 나이로 보아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있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서찬규의 문과 도전 내역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일 년에 여러 차례 도전한 예가 더러 있었다는 사실이다. 철종 5년(1854)에는 세 차례였고 철종 1년(1850)에는 모두 다섯 차례나 되었다. 특히 현종 15년(1849)과 철종 5년 그리고 철종 8년(1857)에는 2-3일 간격으로 응시하고 있는 점이 매우 주목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이러한 모습이 서찬규에게서만 찾아진다는 말은 아니다. 이 시기 문과에 응시한 자들은 거의 비슷한 행보를 걸었다고 생각된다.

물론 서찬규가 응시한 시험이 모두 정식 문과<sup>49)</sup>는 아니었다.<sup>50)</sup> 27회 가운데 정식 문과는 14회였고 나머지 13회는 절일제(節日製) 등 직부전시(直赴殿試) 자격이나 직부복시(直赴覆試) 자격이 주어지던 각종 별시재(別試才)였다. 서찬규가 처음 절일제에 응시한 시점은 생원시에 합격했던 현종 13년 3월 22일인데, 절일제 중에서는 간혹 그 문호를 일반 유생에게도 개방하는 예가 있었다. 그래서 성균관에 들어가지 않았던 서찬규도 응시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46) 표3에 등장하는 시험의 시험 일자가 모두 고정되었던 것이 아니다. 원래 정해두었던 날짜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뒤로 미루어진 예가 자주 있었다.

47) 현종의 繼妃 孝定王后의 나이가 40세에 이른 경사를 경하한다는 명분으로 마련한 경과였다.

48) 이 시험은 인일제에서 낙방한 자들 중 일부를 구제해 주기 위한 시험이었다.

49) 정식 문과란 급제를 주었던 문과를 지칭한다.

50) 서찬규가 처음 문과에 도전했을 때부터 서찬규가 사망하기 전까지 개설된 정식 문과는 모두 101회였다. 하지만 직부전시 자격을 주거나 혹은 급분하기 위해 치른 시험은 그 횟수를 셈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한편 조선의 문과는 서찬규가 사망하기 10년 전인 고종 31년에 갑오경장으로 인해 폐지된다.

서찬규는 현종 15년부터는 아예 서울에 올라가 성균관에서 생활하게 된다. 그해 4월 24일, 그러니까 그가 생애 두 번째로 삼일제(三日製)에 지원한 이틀 후에 그는 비로소 성균관에 적(籍)을 두는데, 외방 유생이 성균관에 머물면서 문과에 도전하는 일이 조선 후기에는 하나의 유행이었던 듯하다.<sup>51)</sup> 고봉(高峯) 기대승(奇大升)의 후손으로서 전남 장성(長城)에 살던 기양연도 그러하였으며, 그 밖에도 다른 사람들의 예를 필자는 더러 보았는데 물론 이는 성균관에 적을 두면 문과에 급제하기가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영조대 이후로 관학(官學)의 진흥을 위해 성균관 유생만을 상대로 직부전시 자격을 주거나 혹은 급분(給分)하기 위해 치르는 시험의 횟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던 상황과 무관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sup>52)</sup>

그리고 더욱이 영조 26년(1750) 이후로는 성균관에서 실시되는 각종 절일제의 선발인원을 향유(鄉儒)와 경유(京儒)로 배분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慣例)처럼 되어 있었다.<sup>53)</sup> 따라서 서찬규는 이전처럼 고향에 머물면서 외방에 시장이 설치되는 식년시나 증광시 혹은 별시나 정시에 응시하기보다는 아예 성균관에 머무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음이 분명하다. 물론 서찬규의 이러한 행동은 그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성균관에 머물게 된 이상 서찬규는 이제 ‘향적이경거자(鄉籍而京居者)’의 처지가 되었다. 적만 시골에 두고 실제로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이다.<sup>54)</sup> 하지만 그가 성균관에 머물고 있다고 해서 외방에 시장이 설치되는 식년시나 증광시 혹은 별시의 초시에 응시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51) 서찬규가 성균관에 입학하던 날인 현종 13년 2월 26일, 그는 성균관의 내에 마련한 숙소에서 잠을 자지 못한다. 임시로 설치한 천막에서 머물러야 했다. 그만큼 성균관에 머물고 있던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52) 영조대에 이르면 이러한 시험들이 숙종조 또는 그 이전 시기에 비해 크게 늘어난다. 영조대의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을 발표할 예정이다.

53) 절일제를 이런 식으로 운영한 것은 영조 26년 3월 17일(庚申)에 치른 삼일제가 최초이다. 이 때 두 사람의 직부전시자를 선발하였는데 그 중 한 사람은 서울 출신이었고 한 사람은 外方 출신이었다. 李存中과 閔在汶이 각각 그들이었다. 이들은 영조 26년 庚午式年榜에서 급제를 받는다.

54) 이에 비해 적은 서울에 있지만 시골에 거주하면서 향시에 주로 응시하던 자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사람을 “京籍而鄉居者”라고 불렀다. 서울 유생이 시골에서 시험을 보는 이유는 시골 유생의 실력이 자신들에 비해 떨어지므로 합격하기가 용이하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는 간혹 고향에 내려와 식년시나 증광시의 초시에 응시하기도 하였다.

정시 역시 마찬가지였다. 즉, 서찬규가 고향에 머물고 있다고 해서 정시에 응시하기가 힘든 것은 아니었다. 초시 시장이 외방에 설치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 서울에서 단 한 번의 시험으로 최종 급제자를 선발하는 정시라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서울로 올라와야만 하는 불편함이 없지는 않았지만 시간은 언제나 충분하였다. 정부에서는 오래 최대한 많은 유생을 불러 모은다는 기본 방침을 세우고 있었으므로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응시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성균관에 머물고 있는 편이 정시에 응시하기 편하다는 점만은 부인할 수 없다. 시험이 개설될 때마다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불편함도 없고 또 시험의 정보도 더 빠르게 더 많이 구할 수 있었다. 더욱이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경과를 정시로 설행하는 일이 잦아졌다. 경비를 절감하자는 취지에서였는데 대부분의 정시는 초시 없이 서울에서만 시험으로 최종 급제자를 선발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로서는 대구에 있기보다는 성균관에 들어가 생활하면서 서울에서 개설되는 시험을 집중적으로 노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음이 분명하다. 서찬규가 지원한 시험 중에 정시가 유독 많았던 것도<sup>55)</sup> 이러한 사정과 관련이 있음직하다.

서찬규가 정시를 집중적으로 공략한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음직하다. 사실 정시는 원래 외방 유생에게 급제를 거의 주지 않는 시험이었다.<sup>56)</sup> 거의 서울과 경기 지역의 유생만이 혜택을 보았는데, 숙종 10년(1684)부터 정시의 운영에 자그마한 변화가 일고 있었다. 정시 낙방자를 위해 실시하던 정시 대륜차, 즉 후정시(後庭試)를 외방 유생을 위한 시험으로 바꾼 것이었다. 정시에 대한 외방 유생들의 불만이 크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였는데 영조대 이후로 오면서 이 후정시가 예전에 비해서는 좀 더 자주 치러지고 있었다.<sup>57)</sup> 따라서 서찬규의 입장에서 보면 정시에 한 번 응시할 때 운이 좋으면 두 번의 기회를 얻는 셈이니 문과 도전의 기회가 그만큼

55) 서찬규가 도전한 전체 27회의 문과 관련 시험 중 33%가 정시였다. 물론 『임재일기』의 기록만을 토대로 계산한 것이다.

56) 이러한 현상은 영조 이후로 개선되는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유념할 점이 있다. 정시 급제자 중 직부전시자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직부전시자들은 정시의 정식 급제자와는 반드시 분류해서 생각해야 한다.

57) 후정시가 매 정시 때마다 개설된 것은 아니었다.

많아진 셈이 된다. 서찬규가 정시에 응시하면서 이런 점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sup>58)</sup>

그런데 이런 낙방자 구제책이 정시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도회에도 있었고 인일제<sup>59)</sup>에도 있었다. 서찬규도 이 두 시험에 각각 현종 13년 9월 23일과 철종 1년 2월 28일에 응시하는데 도회는 식년시 초시나 증광시 초시 낙방자 중 일부를 구제해주기 위한 시험으로 보이며, 인일제 대륜차는 인일제 낙방자 중 일부를 구제해주기 위한 시험이었다.<sup>60)</sup> 서찬규가 이 인일제에 응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그가 당시 성균관에 적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서찬규의 문과 도전의 모습과 관련하여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되고 있다. 서찬규가 처음 문과에 도전했을 때부터 그가 살아생전에 응시할 수 있었던 정식 문과를 모두 계산하면 식년시 7회, 증광시 9회, 별시 10회, 정시 52회, 알성시(謁聖試) 8회, 외방별시(外方別試) 12회, 응제(應製) 3회<sup>61)</sup> 등 111회였는데 이 중 알성시와 별시에는 단 한 차례도 지원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외방별시야 아예 처음부터 서찬규하고는 관계가 없었지만<sup>62)</sup> 알성시나 별시는 그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지원할 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태도를 취했다는 점이 매우 궁금하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

서찬규의 문과 도전의 행적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철종 1년부터 철종 3년(1852) 사이의 2년 공백기이다. 이는 아마도 그 시기에 매산 홍직필을 만난 일과 연관이 있는 듯싶다. 서찬규는 성균관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때 홍직필의 제자로 들어가 홍직필이 사망할 때까지 자주 찾아뵈었는데<sup>63)</sup>, 주지하는 바와 같이 홍직필은 문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58) 그러나 서찬규가 후정시에 응시하였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서찬규가 응시했던 정시에 후정시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59) 1월 7일에 보는 시험이다.

60) 소과도 대륜차가 있었다. 하지만 소과 대륜차의 정확한 이름은 알 수가 없다. 소과에 대륜차가 실시되었음은 『승정원일기』 孝宗 5년(1654) 5월 11일에 보이는 “大司成金佐明所啓 小臣方在待罪中 所不敢仰達 而自前監試會試前 設行大輪次 入格者 抄報該曹 許赴會試矣”라는 말로 알 수가 있다.

61) 응제는 원래 정식 문과가 아니다. 하지만 고종대에 들어와 세 차례 정식 문과로 인정된 예가 있었다.

62) 서찬규가 태어나서부터 과거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경상도 지방에서 외방별시가 마련된 적은 없다. 다만 正祖 16년(1792)의 陶山別科만 있었을 뿐이다.

63) 『임재선생문집』 권6, 雜著에 수록된 「就正日錄」를 보면 서찬규와 홍직필의 관계를 보여 주는 내용이 나온다.

지냈던 사람이었다. 그 역시 문과에 도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말을 할 정도였다.<sup>64)</sup> 아무튼 이러한 분위기에서 서찬규의 마음도 영향을 받았으리라 짐작된다. 하지만 홍직필이 사망한 후에는 다시 문과에 대한 애착을 살린 듯하다.

그러나 철종 5년을 끝으로 분명 서찬규의 행적에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었다. 그전처럼 문과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서울에 올라가는 과정에서나 서울에서 고향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 전과는 달라진 행적이 찾을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경치 좋은 곳을 찾는 일도 잦아졌고 또 공부보다는 선현(先賢)들의 문집을 발간하는 일 등 문과에 필요한 공부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에 신경을 쓰는 일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그의 일기의 면면에서도 분명히 보이는데 문과에 열정이 식고 있었음이 분명했다.

그렇다면 그런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계속 문과에 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그가 가야 할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다. 당대 지식인의 입장로서는 그 길밖에는 달리 나아갈 곳이 없었다. 조정에서도 수시로 경과를 개설함으로써 자신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었으며 양반이라면 당연히 참여해야만 하였다. 그리고 문과 급제는 자신의 부모들이 그토록 원하는 바였다. 따라서 그로서는 비록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 V. 맺음말

서찬규는 오랜 세월 무려 27회에 걸쳐 문과에 도전했지만 급제의 영광을 안지 못한다. 단 한 차례의 시험만으로 생원시에 합격한 것과 비교한다면, 노력에 비해 소득이 너무 없었던 셈이다. 아마 그 긴 기간 동안 서찬규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또 그가 낙방할 때마다 실망하였을 가족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안쓰럽다는 생각도 든다.<sup>65)</sup>

64) “(홍직필)曰 余少時 以親命 三赴司馬試 皆勉強也 大科則 平生 不一赴 以夢思 所不到也” (위의 책, 30-31쪽, “十月 二十四日”).

65) 이후 그는 자손들의 합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그 결과 아들인 鎭穆이 고종 25년(1888)의 戊子式年試의 생원시에서 壯元을 차지하였고, 손자인 甲洙도 비록 額外였

하지만 서찬규의 생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흐르지 않았다. 과거는 비록 소과에 그쳤지만 그 후 그는 더욱 열심히 학문에 전념하였고 그래서 고종 20년(1883) 그의 나이 59세 때 조정으로부터 의금부(義禁府) 도사(都事)라고 하는 중5품의 요직에 임명되는 성은(聖恩)을 입기도 하였다. 물론 이 직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그의 인물과 학문이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더라면 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만큼 그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평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이 배워온 바를 후학들에게 전수하는 일에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 수동재(守東齋)라는 건물을 짓고 후진들을 교육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런가 하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바를 나름대로 고민하기도 하였으며, 일본의 잦은 군사 침략에 대한 대비책으로 경상도 일원의 요새지에 성을 수축할 것을 제의하는 전력가이기도 하였다. 필자가 이 글의 첫머리에서 서찬규를 “향반으로 태어나 향반으로 생을 마감하였지만 그 학문은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인물이었다”고 말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

지만 고종 31년의 甲午式年試에서 합격의 영예를 안게 된다. 三代가 連璧이었던 셈이다.

## 참 고 문 헌

『承政院日記』.

『朝鮮王朝實錄』.

『科學謄錄』.

『國譯 臨齋日記』.

『臨齋先生文集』.

『醴泉 맛길 朴氏家 일기』.

송만오, 「조선시대 비정기 문과의 운영에 관한 몇 가지 검토(1)」, 『향토서울』 82, 2012.

이 글은 서찬규의 생원진사시와 문과 도전의 과정을 추적한 것이다. 그가 얼마나 위 두 시험에 성공하려고 했는지, 그 노력의 모습은 어떠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서찬규는 조선 후기 경상도 대구 지방에 살던 향반(鄕班)으로서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여유는 있었지만 한미한 가문의 출신으로서 양반의 지위까지 위협받을 수도 있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20세를 전후한 시기부터 소과와 문과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였다.

서찬규는 생원시라고 하는 소과에는 어렵지 않게 합격하는 행운을 누렸다. 그는 현종 11년(1845) 생애 처음으로 응시한 소과 초시에 합격했고 이어 그 다음해인 현종 12년(1846) 서울에서 실시한 회시에 당당히 합격함으로써 비로소 진사의 칭호를 획득하였다. 그의 집안에서 소과 합격자가 나오기는 무려 수백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따라서 그의 소과 합격은 서찬규 본인은 물론이고 혹은 집안에도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었다. 그의 소과 합격을 축하하기 위한 잔치가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점은 알 수가 있다.

하지만 서찬규의 진짜 꿈은 소과가 아니라 문과였다. 소과 합격만 가지고는 기울어진 자신의 집안을 일으킬 수 없고 관직에 나아가 자신의 포부를 펼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소과에 합격했던 바로 그해 말부터 문과에 도전하기 위한 기나긴 여정을 시작한다.

서찬규는 문과에 급제하기 위해 수많은 시험에 도전하였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실패만 할 뿐이었다. 그에게 문과는 너무도 운이 없었던 것이다. 이에 서찬규는 철종 5년(1854)을 끝으로 더 이상 문과에 대한 미련을 가지지 않게 된다. 대신 자식들이 과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면서, 본인은 현실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실용학문에 눈을 돌리며 나름대로 큰 업적을 쌓는다.

투고일 2012. 11. 5.

수정일 2012. 11. 15.

게재 확정일 2012. 11. 20.

주제어(keyword) 서찬규(Seo, Chan-kyu), 양반(yangban), 생원시(saengwonsi), 소과(Small Royal Examination), 진사(JinSa), 문과(Royal Examination)